

The seven churches of Revelation – Sermon Notes

Title: “6. The dead church”

Scripture: Revelation 3:1-6

Date preached: November 30th 2025

Scripture: Revelation 3:1-6

1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ha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I know your works,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2 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that are ready to die,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God. 3 Remember therefore how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fast and repent. Therefore if you will not watch, I will come upon you as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what hour I will come upon you. 4 You have a few names even in Sardis who have not defiled their garments; and they shall walk with Me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5 He who overcomes shall be clothed in white garments,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bu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before His angels.
6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져신 아가 이르사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실었다 하는 이름은 기렸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6 귀 있는 자는 상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Review

We continue on today with our journey through first century Asia Minor as we look at the seven letters sent by Jesus to churches in this area. We are looking at the fifth letter today,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Sardis. If you don't like spoilers block your ears now. It's a VERY negative epistle. Jesus has nothing good to say about this church. But before we get into all of that let us review last week's letter. We looked 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Thyatira.

As we noted it is the longest of the seven letters. This is an interesting thing to note because in terms of its size and importance Thyatira was the smallest and least important city of the seven. Located on the Hermus River Thyatira was about 61 km from Pergamos and about 50 km from Sardis. It did not have a particularly long or illustrious history. It began its life as a military outpost due to its valuable strategic location. It was located at the mouth of an important valley that connected the Hermus and Caicus rivers. It was also positioned along a major trade route that ran all the way from Byzantium to Syria.

This meant that many traders and merchants passed through the city. Surprisingly the city never developed much of a reputation for trade. It did however grow into a manufacturing hub. It was a very industrious city with many craftsmen and workers plying their trades. If I had to sum up the city succinctly I would say the following,

It was a city that liked to work and play hard.

It was famous for its wool, leather goods, pottery, linen and most notably for its world renowned

purple dye. Given the large number of trades that flourished in the city it may not come as a surprise to learn that there were numerous trade guilds or work unions. Almost every occupation was controlled by a strict union. It was very much a “closed shop system.” If you were not a paid up union member you could not work in that trade. In some places or industries we still see the same thing today. Join the union and pay your annual subscription fees, or don't work! This presented a major problem for Christians living in Thyatira.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trade guilds were run like religious cults. Their meetings typically took place in the special rooms set aside for such events in the local temples. Once all the union members had arrived they would pour out a drink offering to the temple god, eat meat that had been offered to an idol, get drunk and then engage in fornication. So not really something that a Christian ought to be comfortable joining. The problem was however that refusing to join the guild and attend their meetings meant that you were ostracised and unable to do business in the city.

In terms of its religious outlook Thyatira was like most other places in Asia Minor. It was polytheistic. There were temples and places of worship for all the main Greek and Roman gods. Provided people were good citizens, respectful of others and were reverent towards the emperor they were free to worship whatever god they chose. Live and let live. This same attitude extended towards followers of Christ. Thyatira was not a place in which Christians faced serious persecution for their faith. The city was also famous for having a Sibyl (a prophetess). People came from far and wide to hear her prophetic utterances about the future.

Let us turn now and briefly review the contents of the letter this church received.

The letter begins with Jesus introducing Himself as having eyes like flame and feet of brass. This speaks of His anger at the state of the church in Thyatira, and the fact that He was coming to judge it. Following this Jesus offers a few words of praise or commendation. The church is commended for its love, service, faith, and patience. Jesus notes that in all these areas they have grown or gotten better over time.

However they have a very serious problem. The problem is that they have allowed a corrupt individual to enter the church and teach a destructive doctrine. A self-proclaimed prophetess referred to “Jezebel” has been given a platform to spread lies and cause trouble. She has used this platform to encourage certain church members to engage in sexual immorality and eat foods offered to idols. As I said last time this may well have been related to the all-important trade guilds operating in the city. Perhaps she was teaching that it was okay to attend their meetings and involve yourself in their depravity. Sadly some had accepted her lies, walked away from the gospel truth and entered into these shameful practices. God, we read had shown this wicked woman mercy. She had been given time to confess and repent. But she had chosen not to. She would be struck down along with those who followed or supported her.

The letter does however end on a positive note.

Jesus acknowledges that not all in the church had followed Jezebel. Some, a remnant had remained committed and true. They can expect a reward from God for their faithfulness.

Today we will look 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Sardis.

오늘도 예수님께서 1 세기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신 일곱 편지를 살펴보면서 그 지역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인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스포일러가 싫으시다면 지금부터 귀를 막으세요. 매우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칭찬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 두아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일곱 통의 편지 중 가장 깁니다. 그것이 두아라가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일곱 도시 중 가장 미미했던

것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헤르무스 강변에 위치한 두아다리는 버기모에서 약 61km, 사데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었 습니다. 특별히 길거나 유명한 역사를 가진 곳은 아니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덕분에 군사 전초 기지로 발전 했습니다. 헤르무스 강과 카이코스 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계곡 어구에 위치해 있었고, 비잔티움에서 시리아까지 이어 지는 주요 무역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상인과 무역상들이 이 도시를 거쳐 갔습니다. 그럼에 도 이 도시는 무역으로 큰 명성을 얻지 못했고, 제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장인과 노동자들이 각자의 분 야에서 일하는 매우 근면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양모, 가죽 제품, 도자기, 린넨, 그리고 특히 국제적으로 이름난 자색 염료가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번성했 던 다양한 직종들 때문에 수많은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직업이 엄격한 노동조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 실상 "폐쇄형 상점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 부 지역이나 산업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내 그렇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 이는 두 아다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 조합이 종교적 이단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지역 신전에 마련된 특별한 방에서 열 렸습니다. 조합원들이 모두 모이면 신전의 신에게 술을 바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한 후 음행을 저 질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가까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 가입과 회의 참석을 거 부하면 배척당하고 그 도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아다리는 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신교 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신들을 모시는 신전과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신랄한 시민이고, 타인을 존중하며, 황제를 공경하면 원하는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문지만 일이지 않으면 그 □ 잘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두아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시빌 Sibyl(여예언자)이 있는 것 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그녀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받은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과 눈 같은 발을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두아다라 교회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러 오 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을 몇 마디 하십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 믿음, 그리고 인내 로 칭찬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서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나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 파괴적인 교리를 가르치도록 허용했 습니다.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문제를 일으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 용하여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성적 부도덕에 빠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부추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 렸듯이, 이는 그 도시에서 운영되던 노동 조합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 하고 타락에 동참하는 것이 관찮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복 음 진리에서 떠나 이 수치스러운 행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여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고백 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따르거나 지지했던 자들과 함께 그녀는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이세벨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 십니다. 일부, 남은 자들은 한신적이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충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ntroduction

Before we consider wh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Sardis has to say let me give you some background to the city.

Let's start by pinpointing Sardis on the map. It's located about 56 km (35 miles) south east of Thyatira and about 80 km (50 miles) north east of Ephesus. The city which can be found at the foot of Mount Bozdag is close to the Hermus River valley. The Pactolus River also runs nearby. Historically this river was very important because it was the source for gold. Sardis was a gold town. This enabled the city to become incredibly wealthy. It was also conveniently positioned at a point where five roads intersected. This meant that many traders and merchants passed through the city. As a result it became an important commercial centre.

Today Sardis renamed as Sart is just a small town with a population of around 5000 people. It is however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People visit to see the impressive ruins of ancient Sardis and also Kula-Salihli UNESCO Global Park. Let's now take a few moments to learn a little about the history of Sardis.

The history

In actual fact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origin of Sardis. Archaeologists believe the city dates back to around 1200 BC. However no buildings or other constructions have been discovered from before the 7th century BC. In the 7th century, a new kingdom arose in this area. It came to be known as the Kingdom of Lydia. At its height it ruled over most of western Minor Asia, and the Lydian kings chose Sardis as their capital. Its formidable mountain setting made it a favourable choice. This was to become the first golden era of Sardis. Its most famous king during this time was Croesus (ruled 585 to 546 BC). His claim to fame is that under his rule the first ever gold and silver coins were minted.

In 547 BC, the Persian forces led by Cyrus II invaded Lydia and besieged its capital Sardis. The Persians however were unable to make much progress. The mountain top fortress of Sardis appeared to be impenetrable. All those inside would need to do would be to out-wait the Persians surrounding the mountain. At least this was what the arrogant Lydians thought. However the cities downfall came about in an interesting way.

One evening a Persian soldier called Hyroeades was scanning the wall from a distance. He noticed a clumsy Lydian sentry drop his helmet from the ramparts. Unaware that he was being watched the sentry climbed carefully down, followed a "secret path" and retrieved his helmet. Hyroeades carefully noted the way he'd come and later that night returned with a small force of men. The Lydians who thought they were perfectly safe had left the walls poorly guarded. Once the Persians were inside they opened the main gates and soon the fortress fell. The Kingdom of Lydia was swallowed up by Persia. The Persian period ended with the arrival of the Greeks.

In 334 BC, Alexander the Great conquered Sardis without resistance. The city entered its Hellenistic phase and its whole culture was changed.

Sardis became a part of the Macedonian Empire, and then as various kingdoms came and went a part of the Antigonid, Seleucid, and Attalid Kingdoms. It was during this time when many of the most impressive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cluding the Temple of Artemis. A large Jewish community was established in the 2nd century BC and the Jews built the Synagogue of Sardis.

In 133 BC, the last Attalid king died and his kingdom was transferred to the Roman Republic. The Romans proceeded with the development of Sardis.

They built the Gymnasium (the Roman Baths). Today, it is one of the best-restored Roman buildings in the world, and the main landmark of Sardis.

Sardis grew in Roman times to be a city associated with luxury and decadence. By John's day the city was still prosperous but most definitely decaying. Its glory days were long past. In fact the city did not have a favourable reputation in the ancient world. Even the very mention of its name provoked a negative reaction. It was considered to be home to people who were loose-living, pleasure seeking, apathetic, immoral and obsessed with luxury. Its inhabitants were soft and lacking

discipline and drive.

Let's conclude our introduction section with a few words about religion in Sardis.

Religion

Sardis was devoted to the worship of the mother-goddess Cybele. An elaborate temple was constructed in her honour. The remains show that its main columns were 20 metres high and 2 meters thick. Those that came to worship her were expected to come to the temple in spotless (unsoiled) white robes. The rituals that surrounded her worship were said to be frenzied and hysterical. That is putting it rather diplomatically. They were very much X-rated. Biblical scholar Andrew Tate writes,

“Her worship was of the most debasing character and orgies like those of Dionysus were practised at the festivals held in her honour.” (The Message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Minor, p. 299)

Fortunately Christians were not pressured to participate, or even witness such things. They were generally left alone to worship the one true God in peace. The city did not have the reputation for being a hot-spot for emperor worship. So again this burden was not placed upon the shoulders of believers. As one commentator neatly put it,

“The church in Sardis was completely free from trouble both from within and without.”

So really it had no excuse for being in the sorry state it was. What do we know about how the church started in Sardis?

Not a great deal I'm afraid. It is only mentioned three times in the bible. All these mentions occur in the Book of Revelation. Since we are called to speculate it seems highly likely that the church was started either by the Apostle Paul himself, or by someone he sent out during his time in Ephesus.

Let us now turn to look at the letter the church in Sardis received.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기 전에, 이 도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사데의 위치부터 찾아 보겠습니다. 사데는 두아디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35 마일), 에베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50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보즈다그 산 기슭에 위치한 이 도시는 헤르무스 강 계곡과 기깝습니다. 픽틀루스 강 또한 근처에 흐릅니다. 역사적으로 이 강에서 금이 나왔으므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데는 금광 도시였습니다. 덕분에 이 도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섯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어 많은 상인들이 이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데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데는 사르트 Sart 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구 약 5 천 명의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은 고대 도시 사데의 인상적인 유적과 쿨라 살리홀리 유네스코 세계공원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제 사데의 역사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사실 사데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의 시작이 기원전 1200 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7 세기 이전의 건물이나 구조물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 세기에 이 지역에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고 리디아 왕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소아시아 서부 대부분을 지배했으며, 리디아 왕들은 사데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험준한 산세는 사데를 수도로 선택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는 사데의 첫 번째 황금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왕은 크로아소스(기원전 585 년부터 546 년까지 통치)였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최초의 금화와 은화가 주조되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547 년 고레스 2 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리디아를 침공하여 수도 사데를 포위했으나, □ □ □ □ □ □ □ □ □ □ 못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던 사데 요새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오만한 리디아인들은 산을 포위한 페르시아군보다 요새 안에서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몰락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히로이아데스는 페르시아 병사가 멀리서 요새의 성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투른 리디아 보초병이 성벽에서 투구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초병은 조심스럽게 성벽에서 내려와 "비밀의 길"을 따라 투구를 도쳤습니다. 히로이아데스는 자신이 왔던 길을 잘 기억했다가 그날 밤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리디아인들은 성벽의 경비에 허술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열었고, 곧 요새는 함락되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페르시아에 굴복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그리스 군대에 의해 막을 내렸습니다.

기원전 334 년 알렉산더 대왕은 사테를 아무런 저항 없이 정복했습니다. 이 도시는 헬레니즘 시대로 접어들었고, 도시 전체의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사테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이후 여러 왕국이 흥망성쇠하면서 안티고노스, 셀레우코스, 이탈로스 왕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인상적인 건물들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기원전 2 세기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유대인들은 사테 회당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133 년 이탈리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죽고 그 왕국은 로마 공화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사테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김나지움(Gymnasium, 로마 목욕탕)을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복원된 로마 건물 중 하나이며, 사테의 주요 랜드마크입니다.

사테는 로마 시대에 사치와 은둔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요한 시대에도 이 도시는 여전히 번영했지만, 분명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도시는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무관심하고, 부도덕하며, 사치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본거지로 여겨졌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나약하고 규율과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사테의 종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며 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

사테는 모신 키벨레(the mother-goddess Cybele)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정교한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유적을 살펴보면 주요 기둥의 높이가 20 미터, 두께가 2 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녀를 숭배하려는 사람들은 티끌 하나 없는(때 묻지 않은) 흰 예복을 입고 신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숭배를 둘러싼 의식은 광란적이고 하스테틱했다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다소 악한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X 등급이었습니다. 성서학자 앤드류 테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의 숭배는 가장 저속한 성격을 띠었고, 그녀를 기리는 축제에서는 디오니소스의 것과 같은 난잡한 행위가 자행되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 299 쪽)

다행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는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 압박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한 주석가가 깔끔하게 표현했듯이,

"사테 교회는 인편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사테 교회가 그런 참담한 상태에 이른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세 번만 언급되었는데,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추측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나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파송된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사데 교회가 받은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ha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I know your works,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The letter begins with the customary greeting. It is directed to the leader (pastor / elder) of the church in Sardis. We then come to the specific introduction or title given to Jesus Christ. Here He is described as having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Let us consider each of these titles in turn.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Jesus has the **seven Spirits of God**? This title has been understood in two ways. Some believe it refers to seven angelic beings. An angel remember is simply a messenger, or one sent out to carry news or convey information. So these “special angels” are the ones sent out by God to accomplish His will in the world. I think there are sound reasons for rejecting this theory. By far the better understanding is that it refers to the fullness of God's Spirit. It refers I believe to the seven-fold operations of the Holy Spirit. In Isaiah chapter 11 verse 2 we read the following,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The prophecy as given to the Prophet Isaiah is that the Messiah would be empowered not by seven individual spirits but by the One Spirit, described here in seven ways. So the “seven spirits of God”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a reference to the Holy Spirit in the full perfection of His manifold ministry.

It may also refer to the symbolic depiction of the Holy Spirit as a lampstand with seven lamps (a menorah), presented in Zechariah chapter 4 (4:1–10).

What about the reference to the **seven stars**? The seven stars are the seven messengers or elders from each of the seven churches. The letter was sent to, or perhaps carried personally by said elder back to their respective churches. This particular imagery of seven stars under the control of Jesus reminds us that Jesus Christ, the sovereign Lord of the church chooses to work through godly leaders and pastors.

We come next to Jesus' assessment of the church in Sardis. I warned you at the outset that it was not good. I said in my introduction that Jesus offers this church no praise. This is not strictly true. He does say that they have a “name.” Now, usually when the bible speaks of “having a name” or a “reputation” it connotes character. As we know having character is a good thing. But here it is used ironically. The church in Sardis you see has a name or reputation, but only among other churches. They looked at what the church in Sardis was doing and concluded that it was an effective thriving church. A church that was continuing to do God's work.

Jesus however looks and comes to an altogether different conclusion. He declares that the church is DEAD. It may still be operating on a material level but on a spiritual level the church is kaput! So please note the following very carefully. The church in Sardis is not beginning to deteriorate or decay, nor is it in a critical condition. It is already deceased. It's the church of the living dead!

What you may ask does a “church of the living dead” look like? You may very well have had the misfortune to attend such a church. I know that I have. Let me give you some of the indicators that show a church is in such a state.

A dead church is a church that is fixated on its past successes. All its attention is on what it once

was, not what it is doing now or will do in the future. They say things like, “We used to do this or that,” or, “We were such a great church.”

A dead church is a church more interested in liturgical forms rather than spiritual reality. It is a church obsessed by traditions, order, law-keeping and following protocols of procedures. Of course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but they should not be the focus of a church. Churches that follow strict liturgical forms of worship can become very dry and lifeless. I grew up in the Church of England, so I have first-hand experience of such things.

A church without a pulse may be fixated on curing social ills, rather than on changing hearts through the power of the gospel. Now we should care about the poor and needy. But what good is it providing food and shelter if we ignore the soul.

A church of the living dead is a church more worried about the opinions of men rather than what God says. We really don't want to offend or say anything that the world at large won't like. We want to fit in and not rock the boat. The church should desire to sink the boat not just rock it!

Sadly these descriptions define many churches we encounter today.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아가이사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실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편지는 권력적인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사데 교회의 지도자(목사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칭호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칭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곱 천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단순히 사자, 즉 소식을 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자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파견하신 자들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이 견해를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합당한 견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11 장 2 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라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시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예언은 메시아가 일곱 개의 개별적인 영이 아니라 여기서 일곱 가지 방식으로 묘사된 한 영 One Spirit 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다양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한 스가랴 4 장(4:1-10)에 나오는 일곱 등잔대(메노라)에 대한 성령의 상징적 묘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일곱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곱 별은 일곱 개의 각 교회에서 온 일곱 명의 사자 또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편지는 각 교회의 해당 장로에게 보내졌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일곱 별의 이 특별한 이미지는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사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름"을 가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에 대해 말할 때는 대부분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데 교회는 이름이나 명성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데 교회가 하는 일만 보고 번영하는 교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그 교회가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육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 듣기 바랍니다. 사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거나,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바로 살아 있는 사체들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사체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 참석한 불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은 교회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관심이 과거의 모습에 있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 무엇을 할 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저런 일을 했다" 또는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교회였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죽은 교회는 영적인 현실보다는 의식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전통, 질서, 율법 준수, 그리고 절차 준수에 집착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교회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전례 예배 형식을 따르는 교회는 매우 메마르고 생기가 없습니다. 저는 영국 국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죽은 교회는 복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보다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는 데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무시한다면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살아 있는 사체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신경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적응하고 싶어 하지 세상을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배를 그저 흔들는 것이 아니라 가리웠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인타깝게도 이러한 묘사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정의합니다.

2 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that are ready to die, for I have not found your works perfect before God.

What's the remedy for a church that finds itself in the situation faced by the church in Sardis? It's very simple. WAKE UP! Stop dozing and take action. This message would have resonated with the people of Sardis. I told you before about how their city fell to the Persians whilst they were dozy and inattentive.

It's a little like when you have to make a long car journey along the highway, we call it a motorway in the UK. After a while the tedium of a long straight road becomes too much. You become a little tired. Your head begins to nod against the steering wheel and your eyes becoming heavy. When you experience these symptoms you need to take immediate action. Open the window. Suck a boiled sweet or pull in at the next service station and drink some strong coffee. Ignoring the symptoms and doing nothing may result in disaster.

So the message to the Sardian church is to grip tightly to what little they had and try to improve or enhance it. Life in any church can be rekindled by remembering, repenting and then obeying. The great danger the church in Sardis faced was that without due care the little life they had would soon be extinguished altogether.

Jesus tells them that He has not found their work to be "perfect." The word "perfect" used here means "complete" or "finished." Simply put their works due to being incomplete failed to meet

God's standards. The real issue in Sardis was that they never finished what they started. They were always keen to start new projects and launch new initiatives but soon they ran out of steam and were abandoned. They started the race well but dropped out at the halfway point.

You may have been in churches where new ideas or schemes were constantly being put forward. Let's do this, how about we do that! Sometimes we do need fresh ideas or concepts but we also need to ensure that we see these things through, and properly support them to a God pleasing conclusion. Often I suspect that people who propose good ideas have no idea what a successful conclusion even looks like.

Let us read on.

2 너는 일개어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데 교회와 같은 □□□ 처한 교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깨어나라. 그만 즐기고 조차를 취해 이 메시지는 사데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 과거에 즐면서 부주의한 결과 어떻게 페르시아인들에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때와 비슷하데 영국에서는 자동차도로라고 부릅니다. 달리다 보면 직선으로 뻗은 긴 도로가 너무나 지루합니다. 점점 파곤해지고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 시작하고 눈은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달달한 간식을 먹거나 다음 주유소에 멈춰 진한 커피를 드세요. 증상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앙이 □□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데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이나마 남은 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생명을 다시 불붙일 수 있습니다. 사데 교회가 직면한 가장 □ 위험은 적절한 대책 없이 그들이 가진 미약한 □□□ 곧 완전히 소멸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이 "온전하지 perfect"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온전한"은 "완전한" 또는 "완성된"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사역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데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곧 열정이 식어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경주를 시작한 잘 했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 □□□ 제시되는 교회에 다녔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는 건 어때요. 때때로 우리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들여다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맺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간혹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결론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고 저는 □□□□□.

3 Remember therefore how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fast and repent. Therefore if you will not watch, I will come upon you as a thief, and you will not know what hour I will come upon you.

Jesus tells the church here that it is vital to remember (grip tightly) to what they had received and heard. They had clearly drifted away from their first love for the Lord Jesus Christ. When they initially encountered Him and received the good news they were full of life and vitality. That vitality had sadly ebbed away over time. But, it was not too late. They could still turn things around. To do so they were to remember what they once knew, repent of their current failings and then commit to being faithful to God. If they were to follow this process then the church can be saved. However if they do not Jesus will be compelled to act.

Jesus tells them that a failure to remain vigilant and watchful will result in Him coming upon them "like a thief." In the New Testament, the motif of Christ as a thief emphasizes the unexpectedness of his coming (Matt. 24:42-44; Luke 12:39-40). This same image is used elsewhere to speak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at is not what is in view here.

I hope that you have never experienced a break in. Thieves, for obvious reasons come stealthily at a time homeowners do not expect. They have no desire to encounter the people living in the house they are entering. This is why they sneak into properties in the dead of night, take what they want and silently make their exit.

So Jesus is speaking here of His sudden unexpected appearance. He will arrive without warning. This means that the believers in Sardis must act immediately. Since Jesus could come at any moment putting things off until tomorrow might prove disastrous. Such a notion would have resonated with the Sardians. As I told you in my background to the city Sardis had experienced enemy soldiers (Persians) creeping in like thieves and bringing about their cities downfall. They had on that occasion failed to be properly watchful. They were foolish and complacent.

Had they learned their lesson? Jesus warns them that if they fail again to stay awake and are complacent about their faith that He will come and bring judgment upon the church. This may be sudden and severe.

It's a timely reminder to all of us today that our Kingdom work is never done. We cannot sit back and think our "work" in the church is complete. It may be true that in the past we enjoyed some success. But that does not excuse us from continuing to work hard. We are called upon to carry on faithfully serving God and obeying the great com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o all the world.

Let us continue.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꺾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알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게 그들이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에서 분명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분을 만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생명과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활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렸지만,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때 알았던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기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도둑 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도둑으로 묘사하는 동기는 그분의 재림이 예상치 못한 일임을 강조합니다(마태복음 24:42-44; 누가복음 12:39-40).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여 여러분은 주거 침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둑들은 당연히 집주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몰래 들어옵니다. 그들은 침입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원하는 것을 훔치고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등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이는 사데의 신자들이 즉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 오실 수 있기에, 내일로 미루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데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데는 적군(페르시아군)이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 도시를 함락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태만했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깨어 있지 않고 믿음에 안주하면,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심판은 갑작스럽고 엄중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시의적절하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의 우리의 "시역"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계속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 하라는 대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 You have a few names even in Sardis who have not defiled their garments; and they shall walk with Me in white, for they are worthy. 5 He who overcomes shall be clothed in white garments,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bu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before His angels.

Things were very bad in Sardis. It appears that in the other churches we have looked at there were just a few who had fallen away. In Sardis the situation was reversed. Only a few (a remnant) remained. The vast majority had fallen away. John tells us here there were only a small number who had not defiled their garments. Clothes or garment are used in scripture to refer to "reputation," "personality" or "character" (Zech 3:3-5, Isa 64:6). Soiled clothes are therefore symbolic of "wickedness," "sin" and "compromise" with the world. So those with soiled garments are sinners who have fallen away.

By contrast clean or white clothes symbolize the opposite. Those wearing white were the few who had remained loyal and true to God. It would be these individuals who would get to walk with Christ. This speaks of the friendship and close fellowship believers will one day enjoy.

Again this symbolism would have resonated with the ancient Sardians. They knew that anyone wishing to attend worship in the heathen temples had to appear in clean white clothing. Those coming in dirty or soiled clothing would be turned back. White was also worn by those attending important banquets, feasts or weddings. Those improperly dressed would be denied access.

The same principle applies with our approach to Christ. Unless we approach Him clothed in the purity that comes only through the washing away of our sins through His precious blood we will be turned away. Let me say a couple of things about the colour white.

Did you know that white is the presence of all the light in the visible spectrum. When it enters our eyes, it stimulates all of our cone cells that God made light sensitive.

White, in the Bible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purity. We still make such a connection today. Traditional wedding dresses in the west are always white. The colour white in scripture is connected with things that are "good," "innocent," "honest," "righteous" and "clean." In Revelation, white is worn by the "conquerors" who faithfully avoid the stain of idolatry and are with God in their resurrection bodies (Rev 6:11; 7:9).

So those in Sardis who keep the flame of their faith alive (overcome) will be clad in white by Christ and will walk with Him. That is the first promise.

The second promise is that He will not blot their name out from the Book of Life. Now some are a little confused by what is meant here. Some take it to mean that Jesus is sat up in heaven eraser in hand engaged in the process of removing, and then perhaps rewriting people's names in the register of who is going to inherit eternal life. This is not the way to understand this verse.

Let's unpack what's going on. There are several books (records) that God keeps in heaven. Now God being omniscient does not really need to keep written records. But this language or concept helps human beings understand things better.

In Exodus chapter 32 (Exo 32:33) God tells Moses that He will blot out those who sin against Him from the book. Some assume therefore that what we are reading here in Revelation is the same book. This means they claim that a person cannot be assured of their eternal salvation. If they sin or fall away from the faith then God could erase their name. Fear not. The "book" mentioned in Exodus 32 is a different book to the one referenced here in Revelation 5. The "book" in Exodus is referring to earthly, physical life, not eternal life in heaven.

Here we are reading about “The Book of Life” also known as the “Lambs Book of Life.” This book contains the names of those who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ord Jesus (Rev 13:8; 21:27). It is God’s record of all those over the centuries who have trusted Christ as their Saviour and have followed Him as Lord.

In John’s day, rulers kept a register of the citizens of a city. If someone died, or committed a serious crime, their name was erased from the register. They were no longer recorded as being a part of said city, and as a result were no longer entitled to benefit from citizenship. So what Jesus is doing here is giving assurance to the remnant in Sardis. Those who overcame the pressure to give in, or let their faith wither and die will not be blotted out of the Book of Life. God will never doom the overcomer to eternal death. They can rest assured knowing that because they are in Christ they hav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forever. So if you have confessed and repented of your sins, and then placed your faith in Christ alone for your salvation then you are one of the elect.

You belong to God and He will never lose you.

The third and final promise is that Jesus will confess the overcomers name before God the Father and the angels. What a wonderful moment this will be. Jesus will publicly announce before the Father and the whole heavenly host that we belong to Him.

Have you ever been invited to a party as someone's guest? Their plus one. Prior to the party you had never met the host of the party. At some point during the celebrations you bump into the host and stare awkwardly at each other. The host clearly wonders who you are. Eventually they speak up, “Excuse me, who are you? I've no idea who you are, are you a gate-crasher?”

Thankfully at that very moment the person who invited you steps forward and says,

“It's okay, they are with me.”

At which point the host smiles broadly, claps you on the back and tells you to enjoy the party.

This is kind of like what happens with us in heaven. Jesus tells the Father, it's okay they are with me.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기록하리니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데 교회는 상황이 매우 나빴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교회들에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데 교회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소수(남은 자)만 남았습니다. 대다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명상", "성품"을 자칭하는 데 사용됩니다(스가랴 3:3-5, 사 64:6). 더러워진 옷은 "사역함", "죄", 그리고 세상교의 "타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죄인들입니다.

반면에 깨끗한 옷이나 흰 옷은 그 반대를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하게 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런 신자들이 언젠가 누리게 될 우정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고대 사데인들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교 사원에서 예배에 참석하려면 누구나 깨끗하고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럽거나 때묻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돌려보내졌습니다. 중요한 연회, 축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야만 얻을 수 있는 순결함을 입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흰색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색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모든 빛을 포함합니다.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빛에 민감하도록 만드신 모든 원뿔 세포를 자극합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일반적으로 순결과 연관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웨딩드레스는 항상 흰색입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선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한" 것과 연관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이상 숭배의 열락을 멀리하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입습니다(계 6:11; 7:9).

그러므로 사데에서 믿음의 불꽃을 간직한(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입히시고 함께 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아 지우개를 손에 들고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다 다시 쓰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러 권의 책 기록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2 장(33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책에서 지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책이 그것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32 장에 언급된 "책"은 요한계시록 5 장에 언급된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책"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적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도 알려진 "꺄꺄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3:8; 21:27). 이 책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요한 사대의 통치자들은 한 도시의 주민 명부를 보관했습니다. 누군가 죽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면 그 이름은 명부에서 꺄꺄꺄꺄꺄꺄꺄. 그들은 더 이상 해당 도시의 일원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혜택을 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은 사데의 남은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굴복이라는 압력을 이겨내고 믿음이 시들어 죽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결코 영원한 죽음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면, 당신은 택함받은 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기는 자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온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그분께 속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님으로 파티에 초대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 누군가의 동반자로 말입니다. 당신은 파티 이전에 파티 주최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티 도중 어느 순간, 당신은 주최자와 마주쳐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봅니다. 주최자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엽니다.

"살려합니다. 누구사죠? 전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혹시 불청객 아닙니까?"

다행히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초대했던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자 주초자는 활짝 웃으며 당신의 등을 두드리고 파티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은 저와 함께 왔으니 괜찮습니다."라고 시인하십니다.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

The letter concludes with the warning to listen carefully and heed what the Spirit says. This was true for the zombies inhabiting the spiritually dead church in Sardis. It is equally true for believers today.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be looking at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Let us turn now to our lessons to learn.

이 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로 끝맺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사데 교회에 살던 좀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reading.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Are you a spiritual zombie?

The believers in Sardis clearly thought that they were "doing church" in a good and God pleasing manner. They didn't think that there was anything wrong with their apathetic lazy attitude, or their inability to ever finish what they had started. Jesus disagreed with their self assessment. He concluded that they were actually dead. They were spiritual zombies. They gave every appearance of being alive but spiritually they were dead.

Today there are a lot of movies and TV shows about zombies. They are incredibly popular. People seem to be obsessed with them. The concept behind zombies is that they are the "living dead." All the things that made them human and special have gone to be replaced an insatiable appetite to eat flesh. They wander around like human beings, but are in effect just flesh puppets going through the motions of existence.

Some Christians seem to follow this exact pattern in their lives of faith. These people go to church, engage in church activities and act like they are true believers but they are merely going through the motions. They are just meat puppets without any fire for Christ driving them. They look and act like Christians, at least from the outside but inside they are spiritually dead. So my question to all of you listening today is as follows. Are you a spiritual zombie?

Just for fun let's take a zombie test. You can either affirm or deny the following statement. It will give you a good idea about your current zombie state.

I'm going to read a statement. You can either affirm or agree with it, or outright deny it. First let's deal with what should characterise a real Christian.

I'm not a spiritual zombie.

-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말합니다.
- 저는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동의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영적인 좀비가 되어가고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좀비입니다

- 저는 관계보다는 명성에 의존합니다.
-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나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부족합니다.
- 저는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참석할 의욕이 거의 없습니다.
- 저는 자주 기도하지 않거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 저는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 가까이 타협합니다.
- 저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약간 좀비화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데의 신자들처럼 당신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비 같은 삶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2 The time is now

I really detest those trucks that drive around before elections blaring out the slogans for particular candidates. Often they will stop at major intersections so that they can deafen as many people as possible with their propaganda. I find them offensive. If you want to guarantee not getting my vote then use one of those trucks.

Now imagine if thieves, con-artists or crooks used similar tactics. Imagine, as silly as it sounds that they went around with a bullhorn announcing to the world that they were planning on robbing a particular house at a particular time.

“At three am tomorrow I plan on breaking into apartment 137.”

The whole idea is ludicrous. Thieves and crooks rely on craftiness and stealth. They never announce their plans beforehand. This is why we must remain ever vigilant. They look for opportunities or weakness in which to strike.

So when Jesus tells the church in Sardis that he is going to act in the manner of a thief it should make us think. The Sardians were not going to get a warning. There would be no public announcement. Since they don't know when the “thief” may come they needed to act immediately. No time is to be lost having meetings or discussing what to do. There are problems in the church so let us act now before God judges us.

This same approach I believe is applicable to us today.

If there are problems, issues or things to be done in the church action needs to be taken right away. If a missionary needs help or support let's get right on it. Or how about if someone needs prayer or guidance lets do it now. If someone needs to hear the gospel let's proclaim it right now. There is never any guarantee that we have a tomorrow. So let's not procrastinate or put off until some future time what could and should be done today. Who do you know who needs to hear the gospel? The time is now. Let's act.

2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선거 전에 특정 후보의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니는 트럭들이 정말 싫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멈춰 서서 최대한 많

은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려고 선전을 퍼붓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짓이 불쾌합니다. 제 표를 확실히 얻고 싶지 않다면 그런 트릭을 이용하세요.

도둑, 혹은 사기꾼들이 비슷한 전략을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리석게 들리지만, 그들이 확성기를 들고 다니며 특정 시간에 특정 집을 털 계획이라고 알리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새벽 3 시에 137 호 아파트에 침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발상은 터무니없습니다. 도둑과 사기꾼들은 교활함과 은밀함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공격할 기회나 약점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데 교회에 도둑처럼 행동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데 교회 사람들은 경고를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을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대처해야 했습니다. 모임을 갖거나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에 문제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누군가 기도나 인도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행동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행동합니다.